



김동혁(연세대)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쿰란 히브리어, 즉 사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의 철자와 음운을 기술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대 히브리어의 변천이라는 맥락에서 쿰란 히브리어를 유형론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¹⁾ 1947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서(NRF-2015S1A5B5A07043246), 제105차 한국구약학회 추계학술대회(장로회신학대학교, 2017년 9월 22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찬을 통해 제안과 비평을 주신 임봉대 박사, 논문의 초고를 읽고 조언을 해 주신 김유기 교수, 또한 「구약논단」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1) 본 논문이 시도하는 유형론적 규정이란 쿰란 히브리어의 형태를 이전 시대의 성서 히브리어의 형태 및 이후 시대의 미슈나 히브리어(Mishnaic Hebrew)의 형태와 비교하는 작업이다. 즉, 쿰란 히브리어가 성서 히브리어와 어떤 면에서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보이는지, 미슈나 히브리어와 어떤 면에서 연속성 및 불연속성을 보이는지를 기술하려는 것이다.

년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은 히브리 사상과 유대교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연구에 있어서도 심대한 공백을 메워 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전까지는 성서 히브리어 자료가 끝나는 제2성전기 중반에서 미슈나(Mishnah)가 집대성된 기원후 2세기 말까지가 히브리어의 언어학적 공백기였기 때문이다.²⁾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으로 자료의 연속성이 확보되었고 이로써 히브리어 발달의 그림이 성서 히브리어 → 쿰란 히브리어 → 미슈나(탄나) 히브리어(Mishnaic/Tannaitic Hebrew) → 랍비(아모라) 히브리어(Rabbinic/Amoraic Hebrew)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부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성서 히브리어와 미슈나 히브리어 사이에 위치한 쿰란 히브리어를 규정하기 위해 애써 왔는데, 대표적인 학자로 쿠처(E. Y. Kutscher), 키므론(Elisha Qimron), 모라그(Shelomo Morag), 블라우(Joshua Blau), 아베그(Martin G. Abegg), 레이먼드(Eric D. Reymond) 등이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쿰란 히브리어에 대한 개괄적 논의가 적어도 필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우선, 필자가 알기론 한국 성서학, 종교학, 언어학계에서 쿰란 히브리어를 개관하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현재 국내에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사해 두루마리와 쿰란 공동체에 관해 활발히 연구하고 있

2) E. Y. Kutscher,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Magnes, 1982), 87.

3) Kutscher, *The Language and Linguistic Background of the Isaiah Scroll (1QIsa^a)* (STDJ 6; Leiden: Brill, 1974); Elisha Qimr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HSS 29; Atlanta: Scholars Press, 1986); Shelomo Morag, "Qumran Hebrew: Some Typological Observations", *Vetus Testamentum* 38 (1988), 148-164; Joshua Blau, "A Conservative View of the Language of the Dead Sea Scrolls", T. Muraoka and J. F. Elwolde (eds.), *Diggers at the Well: Proceedings of a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nd Ben Sira* (STDJ 36; Leiden: Brill, 2000), 20-25; Martin G. Abegg,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Peter W. Flint and James C. VanderKam (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2 vols. (Leiden: Brill, 1998-1999), 1:325-358; Eric D. Reymond, *Qumran Hebrew: An Overview of Orthography, Phonology, and Morphology* (RBS 7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4).

다. 다뤄진 주제들은 사상(죽음, 부활, 예정, 묵시, 종말, 메시아 등), 의례(제사, 정결과 부정, 공동체 규율 등), 역사(유대교와 기독교 역사와 발전 과정 중 종파 공동체의 위치와 의의) 및 사본학 등 다양한 면을 아우른다.⁴⁾ 그러나 두루마리의 언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대 히브리어의 역사와 관련하여 쿨란 히브리어를 언급한 것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개 특정한 문법 요소 몇몇을 분석했거나,⁵⁾ 특정 주제에 관해 연구했을 뿐이다.⁶⁾

둘째, 2000년대 이후 쿨란 히브리어에 대한 언어학적 개관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했다. 해외의 경우 쿨란 히브리어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온 것은 사실이다. 키르론의 단행본 「사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가 1986년에 출간되었고, 이후에도 쿨란 히브리어에 대한 개관이 소논문 형태로 몇 차례 발표되었다.⁷⁾ 그러나 두루마리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것은 불과 몇

-
- 4) 몇 개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덕중, "1QpHab(히박국 주석서)를 통해 본 쿨란 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20집 (2006), 35-58; 송창현, "쿨란 사본과 성서 연구: 4Q285, 4Q448, 4Q246, 7Q5, 11Q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6 (2005), 7-38; 송창현, "쿨란 사본과 정경의 문제", 「Canon&Culture」 6/2 (2007), 72-104; 송창현, "쿨란의 유대이즘과 헬레니즘", 「Canon&Culture」 7/1 (2009), 97-127; 송창현, "쿨란의 이사야서 사본과 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20 (2007), 30-51; 송창현, "사해 두루마리에 나타난 알레고리 해석: 1QH^a XVI 5-12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8/2 (2014), 71-103;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계약 신학", 「구약논단」 20집 (2006), 59-81; 이윤경, "쿨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טהרה) 토호라", 「구약논단」 34집 (2009), 144-161; 이윤경, "쿨란 시편사본과 페세르 시편을 통해 본 쿨란공동체의 신학", 「Canon&Culture」 10/1 (2016), 147-171; 임봉대, "1QpHab vii.5-viii.3에 나타난 의인(義人)의 구원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60집 (2016), 66-95; 조명기, "쿨란 공동체의 하박국 재해석", 「구약논단」 20집 (2006), 10-34; 조명기, "쿨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22집 (2006), 115-128; 천사무엘, "쿨란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4집 (1998), 99-123; 천사무엘, "구약정경의 형성과정에 대한 재고: 표준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1집 (2014), 200-226.
- 5) 신성윤, "고전 히브리어의 미완료 2/3인칭 남성복수 동사 어미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 연구」 11/1 (2009), 105-131; 신성윤, "성서 히브리어 미완료 1인칭 단수 의지표현법 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1/1 (2010), 217-248.
- 6) 조명기, "아시아 6장 해석: 1QIsa^a Col. VI: 2b-10에 나타난 히브리어 변형연구", 「구약논단」 25집 (2007), 103-119.
- 7) Morag, 윌글; Blau, 윌글; Qimron, "The Nature of DSS Hebrew and Its Relation to BH and MH", *Diggers at the Well*, 232-244; Abegg, "The Linguistic Analysis of the Dead Sea Scrolls: More Than (Initially) Meets the Eye", Maxine L. Grossman (ed.), *Rediscovering the Dead Sea Scrolls: An*

년 전이다. 본문들의 출간은 「유다 광야의 발견」(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시리즈 완간과 함께 최근이야 마무리되었고,⁸⁾ 또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본문의 단어 사용을 정리하는 컨코던스가 2010년에 완성되었다.⁹⁾ 이러한 이유로 지금에 이르러 콤파 히브리어를 다시 개관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가 다루려는 것은 ‘콤파 히브리어’, 즉 사해 두루마리가 보여 주는 히브리어이다. 이때 ‘사해 두루마리’는 일반적인, 좁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사해 북동쪽의 콤파 유적지(Khirbet Qumran) 부근 열한 개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만을 가리킨다.¹⁰⁾ 이들 문서의 수는 900을 넘어서는데,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아람어로 쓰인 것이 꽤 있고 그리스어로 쓰인 것도 조금 있다.¹¹⁾ 아람어와 그리스어로 쓰인 문서는 본 논의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900여 개의 두루마리를 분류할 때에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은 (후에 히브리 성서를 이루게 될) 성서 두루마리와 비(非)성서 두루마리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사해 두루마리를 남긴 흔히 ‘콤파 공동체’라고 불리는 종파의 사상을 담은 종파적 두루마리와 특별히 종파적이지 않은 비

Assessment of Old and New Approaches and Methods (Grand Rapids: Eerdmans, 2010), 48–68.

- 8) 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 DJD) 시리즈는 모두 40권으로 구성된다. 2002년에 출간된 DJD 39권은 앞의 서른여덟 권에 대한 색인과 서문을 담고 있다. 특이하게도 6년 뒤인 2008년에 한 권이 더 출간되었는데, Hartmut Stegemann, Eileen Schuller, and Carol Newsom, *Qumran Cave 1.III: 1QHodayot^f: With Incorporation of 4QHodayot^f and 1QHodayot^b* (DJD 40; Oxford: Clarendon, 2008)이 그것이다.
- 9) Abegg et al., *The Dead Sea Scrolls Concordance*, 3 vols. (Leiden: Brill, 2003–2010).
- 10) John J. Collins, “Dead Sea Scrolls”, *ABD* 2:85; 천사무엘, 「사해사본과 콤파 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4. 넓은 의미에서 ‘사해 두루마리’는 마사다(Masada), 와디 무랍바이트(Wādī Murabba’at), 나할 헤베르(Nahal Hever), 나할 셰엘림(Nahal Še’elim), 나할 미슈마르(Nahal Mishmar)에서 최근까지 발견된 문서들을 통칭한다. Collins, 윗글, 85; 천사무엘, 윗글, 13을 보라.
- 11) James C. VanderKam, *The Dead Sea Scrolls Toda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10), 47. Abegg에 따르면 히브리어 문서는 550편을, 아람어 문서는 100편을 헤아린다. Abegg, 윗글(1998), 325.

중과적 두루마리로 나누는 것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성서 두루마리는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¹²⁾ 중과적 두루마리는 약 38%, 비중과적 두루마리는 약 27%를 차지한다.¹³⁾ 사해 두루마리 히브리어를 개관함에 있어, 두루마리의 다수가 성서 두루마리라는 점은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 준다. 사해 두루마리 히브리어 개관의 목적이 두루마리를 저작하고 복사한 이들의 언어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면, 필경사들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반영하는 두루마리들이 최선의 자료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서 두루마리는 최선의 자료는 아니다. 성서 두루마리는 그 대본(*Vorlage*)이 이전 시대의 히브리어, 즉 성서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필경사들이 대본을 베낀 결과물에는 대본 속 옛 히브리어의 간섭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두루마리가 콤란 히브리어의 본질을 보여 준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해 두루마리의 성서 두루마리와 마소라 본문이 차이가 날 때이다. 이런 차이들은 사해 두루마리를 베낀 필경사들의 자연적 언어가 자신도 모르는 새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요컨대, 성서 두루마리에서 필경사들의 언어(콤란 히브리어)의 전체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필경사들의 언어의 특징 몇 가지를 식별해 내는 것은 가능하다.

1.3. 콤란 히브리어에 관한 학자들의 이해

콤란 히브리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지만, 두루마리의 히브리어에 구어적 요소가 얼마큼을 차지하는가를 기준으로 두 입장이 대립한다는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다. 첫

12) Steven E. Fassberg의 통계이다. Fassberg, "Dead Sea Scrolls: Linguistic Features", Geoffrey Khan (ed.),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온라인 자료로 2017년 7월 22일 접속(http://dx.doi.org.proxy.library.emory.edu/10.1163/2212-4241_ehl_EHLL_COM_00000277). Abegg, 윗글(1998), 325에 따르면 그 편수는 약 2200이고, VanderKam, 윗글, 48-49에 따르면 약 206-213이다.

13) Fassberg, 윗글.

번째 입장은 쿵란 히브리어의 구어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두루마리의 히브리어가 필경사들이 실제로 말하던 방언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이해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사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제2성전 시대 쿵란 공동체가 실제로 말하고 쓴 살아 있던 히브리어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은 모라그와 키르론 등이 있는데, 특히 키르론에 의하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는 과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형태의 방언이다.¹⁴⁾ 둘째, 이와는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두 번째 입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두루마리의 히브리어가 제1성전 시대의 히브리어, 흔히 고전 성서 히브리어(Classical Biblical Hebrew)라 불리는 히브리어 형태를 모방하려 했다고 이해한다.¹⁵⁾ 즉, 구어적인 자연스러운 히브리어 방언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기록된 본문들의 문투를 모방한 인위적인 방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학자들도 구어의 간섭을 인정하기는 한다. 때로 필경사들의 구어적 형태가 두루마리 이곳저곳에 흩뿌려져 있다는 것이다. 즉, 양쪽 입장 공히 두루마리의 히브리어 속에 구어적 요소가 들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차이는 그것의 정도이다. 구어적 요소가 언어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가, 아니면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고 전체적인 방향은 고전 성서 히브리어의 문어체를 지향하는가가 두 입장을 나누는 핵심이 된다.¹⁶⁾ 조금 색다른 의견이 하나 더 있는데 ‘반(反)언어’(antilanguage) 이론이다. 슈니더윈드(William M. Schniedewind)가 제안한 ‘반언어’란 쿵란 공동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그들의 라이벌 공동체와는 다른 히브리어를 일부러 구사했다는 이론이다.¹⁷⁾

14) Morag, 윗글; Qimron, 윗글(1986), 117-118; Qimron, 윗글(2000)을 보라. Fassberg, 윗글을 보라.

15) 예컨대, Kutscher, 윗글(1974); Blau, 윗글, 24-25를 보라.

16) Fassberg, 윗글.

17) William M. Schniedewind, "Qumran Hebrew as an Anti-languag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

주의할 것은 우리가 ‘쿰란 히브리어’ 혹은 ‘사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는 단일체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쿠처는 쿰란 히브리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셋으로 본다. 우선 성서 히브리어가 있고,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이기도 했던 아람어적 요소도 있으며, 또 당연하게도 (후에 미슈나 히브리어가 될) 필경사들의 구어체도 있다.¹⁸⁾ 또한 두루마리 간에도 철자, 음운, 형태 등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전반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¹⁹⁾ 많이 알려진 예로, 4QMMT²⁰⁾(Miqsat Ma‘ase ha-Torah)와 구리 두루마리(the Copper Scroll = 3Q15)는 미슈나 히브리어에 가까운 언어 형태로 쓰였다고 여겨진다.²¹⁾

2. 쿰란 히브리어의 철자법

쿰란 히브리어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자, 음운, (단어

(1999), 235–252; Schniedewind, “Linguistic Ideology in Qumran Hebrew”, *Diggers at the Well*, 245–255. 또한 Fassberg, 윗글을 보라. 쿰란 히브리어를 규정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관해서는 Fassberg, 윗글과 Reymond, 윗글, 13–15를 보라.

- 18) Kutscher, 윗글(1974), 23–62; 특히 Kutscher, “Hebrew Language: The Dead Sea Scrolls”, *EncJud* 8:635.
- 19) Kutscher, *EncJud* 8:635.
- 20) 이하 사해 두루마리를 표기하는 방식은 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가 규정한 방식을 따른다. *The SBL Handbook of Style*, 2nd ed. (Atlanta: SBL Press, 2014), 127을 보라.
- 21) Morag, 윗글, 149. Morag는 비성서 두루마리의 히브리어를 크게 셋으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두루마리는 그가 ‘일반 쿰란 히브리어’(General Qumran Hebrew)라고 부르는 언어 형태로 쓰였고, 4QMMT는 ‘쿰란 미슈나 히브리어’(Qumran Mishnaic Hebrew)로 쓰였고, 구리 두루마리는 ‘구리 두루마리 히브리어’(Copper Scroll Hebrew)로 쓰였다. Morag, 윗글, 149.
- 쿰란 히브리어를 개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출판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교적 초기의 자료로 이샤야 두루마리(1QIsa)의 언어와 그 배경을 연구한 Kutscher의 단행본(윗글[1974])이 있고, 그 다음 얼마 전까지 사해 두루마리의 본격적인 문법서로서 유일했던 Qimron의 「사해 두루마리의 히브리어」(윗글[1986])가 있다. 「유다 광야의 발견」(Discoveries in the Judean Desert) 시리즈의 완간 이후 이전에 참고하기 힘들던 자료들까지 아우른 개관으로 Abegg의 소논문(윗글[1998])과 Reymond의 단행본 「쿰란 히브리어: 철자, 음운, 형태의 개관」(윗글)이 있다.

의) 형태, 구문이라는 언어의 네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본 연구는 철자와 음운만을 분석하고 형태와 구문은 다음을 기약하고자 한다. 이상적인 알파벳이라면 음운과 철자가 온전하게 일대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라면 철자와 음운이 그 외연이 완전히 일치할 것이므로 둘을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 속 다른 모든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상적이지 않으므로, 철자의 영역과 음운의 영역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철자를 다룰 때에 음운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현상이 있고, 철자 영역에서 다룰 수 없는 음운 관련 현상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두 영역은 아래에서 구분하여 논의된다. 다른 한편으로, 두 영역은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기에, 아래에서 논의를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임의적이다.

2.1. 완전 철자법(1): 모음 글자 ֿ의 사용²²⁾

사해 두루마리의 철자법을 대표하는 특징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바 완전 철자법이다.²³⁾ 성서 히브리어에서도 모음을 표기할 때에 알파벳 ֿ와 ֿ를 종종 사용하지만, 쿵란 히브리어에서 그 빈도수는 더욱 늘었다.

우선 ֿ의 경우는 u/o 계열의 긴 모음, 짧은 모음, 반모음을 모두 나타내었다.²⁴⁾ 아베그에 의하면, o/ɔ는 매우 일관되게, u/ü는 종종, ֿ로 표기되었고, 거의 200단어가 이러한 현상을 보여 준다.²⁵⁾ (이하에서 히브리어의 예들을 적을 때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마소라 본문의 표기법을 괄호 속에 적었다.)

22) 아래 논의는 Qimron, *윗글*(1986), 17 (§100.2)과 Abegg, *윗글*(1998), 328을 주로 참고하였다.

23) Abegg, *윗글*(1998), 328-330.

24) Qimron, *윗글*(1986), 17.

25) Abegg, *윗글*(1998), 328.

(M. H. Segal)은 이 글자가 \hat{u} 와 \hat{o} 뿐 아니라 \bar{u} , u , \bar{o} , o , \bar{o} 에도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²⁹⁾ 요컨대 성서 히브리어와 비교할 때 모음 글자 \bar{i} 는 쿰란 히브리어에서 그 사용이 크게 늘었으며, 그러한 양상은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2.2. 완전 철자법(2): 모음 글자 \bar{i} 의 사용³⁰⁾

\bar{i} 는 주로 i 를 나타낼 때에 쓰였는데, 그 사용 빈도는 i 보다 훨씬 적고, 짧은 모음을 나타낼 때도 있지만 어원상 긴 모음을 더 자주 나타냈다.³¹⁾

רוּר (= רוּד), רִישׁוֹן/רִיאשׁוֹן/רִיאשׁוֹן (= רִאשׁוֹן), שְׂרִירוֹת (= שְׂרָרוֹת), הַסִּיר (= הַסִּיר; 1QIsa^a 27:9), בְּנִימִין (= בְּנִימִין), תִּשְׂאוּם (= תִּשְׂאוּם; 1QIsa^a 15:7)

\bar{e} 를 나타내는 경우는 예외적인 편이다.

וְרִישִׁית (= וְרִאשִׁית; 4Q252 1 IV, 4), הַמִּיאֹת (= הַמִּאֹת; 11QT^a LVIII, 4), הַעִיר (= הַעִיר; 11QT^a LXI, 9), עִירוֹת (= עִירוֹת; CD III, 15), וּפְרוֹשׁ (= וּפְרוֹשׁ; CD IV, 6), רִיעִיכָה (= רִיעִיכָה; 11QT^a LIV, 20)

세같은 모음 글자 \bar{i} 가 미슈나 히브리어에서 i , \bar{e} , e 를 나타냈음을 지적한다.³²⁾ 결론적으로 모음 글자 \bar{i} 는 성서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긴 모음(i , \bar{e})을 나타낸 데 반해, 쿰란 히브리어와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는 짧은 모음(i , e)도 나타낼 수 있었다.

29) M. H. Segal,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1927), 25.

30) 아래 논의는 Abegg, *윳글*(1998), 330을 주로 참고하였다.

31) Fassberg, *윳글*.

32) Segal, *윳글*, 26.

2.3. 완전 철자법(3): 모음 글자 ה를 더 많이 사용³³⁾

이인칭 남성 단수를 나타내는 접미 대명사 및 동사 어미가 마소라 본문
문의 ה 대신 כה-로, קטלתּ 대신 קטלה-로 표기된다.

קודשכה (= קדֹשֶׁךָ; 1QS XI, 19), אהבתה (= אהֶבְתָּה; 1QH^a IV, 36)

אהבתה 같은 형태는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도 사용된다.³⁴⁾

2.4. III-ה 명사의 연계형³⁵⁾

III-ה 어근에서 파생된 남성 명사의 단수 연계형은 마소라 본문에서
보통 ה-로 끝나는데, 쿨란 히브리어에서는 ו-로 끝날 때가 있다. 이 경우
·는 키르논이 지적하듯이 세골(·)이 아닌 체레(·)를 표현한다.

מעשי (= מעֶשֶׂה; 1QM V, 9-11), אשי (= אֶשֶׁה; 11QT^a XXIII, 17; XXVIII, 0-2, 2)

반면 같은 명사의 절대형은 마소라 본문에서처럼 주로 ה-로 표기한다.

2.5. 이중자의 사용³⁶⁾

한 음운을 나타내는 이중자(digraph) וֹאֵ-, אֵי-, יֹאֵ-, אֵי-가 어중에서
사용된다. 어중의 이중자는 키르논에 따르면 א를 포함하는 어근에서 온

33) 아래 논의는 Qimron, 윗글(1986), 23 (§100.7)을 주로 참고하였다.

34) Miguel Pérez Fernández, *An Introductory Grammar of Rabbinic Hebrew* (Leiden: Brill, 1999), 107.

35) 아래 논의는 Qimron, 윗글(1986), 20 (§100.34)을 주로 참고하였다. 뒤따르는 예도 여기서 가져왔다.

36) 아래 논의는 Qimron, 윗글(1986), 20-22 (§§100.5, 51, 52)을 주로 참고하였다. 뒤따르는 예도 여기서 가져왔다. 또한 Abegg, 윗글(1998), 328; Reymond, 윗글, 52-61을 보라.

단어들에서만 거의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צֵאוֹן (= צֵאוֹן), תֹּאכַל (= תֹּאכַל/תֹּאכַל), רֹאשׁ (= רֹאשׁ/רֹאשׁ)

א가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רושׁ, תּוֹכְלוּ, רוּשׁ).

특히 흥미로운 것은 어근에 א가 없는데도 나타나는 어말의 이중자 אֵא-, וֵא-이다

כִּיא (= כִּי), מִיא (= מִי; 1QM X, 8), מִפִּיא (= מִפִּי; 1QpHab II, 2), לִפִּיא (= לִפִּי; 4Q491 1-3 8; 20 2), אֵיא (= אֵי; 4Q491 11 I, 18), וֵאפִיא (= וֵאפִי; 1QS X, 19), בִּיא (= בִּי; 4Q491 11 I, 13), לִוא (= לוֹ; 1QS VI, 27; 11QT^a LVI, 19; LXV, 15; LXVI, 10),³⁷⁾ יֵכְמוּא (= יֵכְמוּ ["그들이 열망한다": 어근: כָּמַה]; 1QH^a XIV, 21), יֵאֵמִינוּא (= יֵאֵמִינוּ; 1QpHab II, 6)

위 철자들이 마소라 전통과는 다른 발음을 표현한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갈린다. 쿠티는 콤란 히브리어 철자의 발음이 마소라 본문의 발음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³⁸⁾ 키르론은 쿠티의 의견에 동의하나 반대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³⁹⁾ 레이먼드는 쿠티의 의견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는 철자상의 차이일 뿐일 것이라고 말한다.⁴⁰⁾ 콤란 히브리어에서 א의 발음이 많이 약해졌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아래를 보라), 필자도 레이먼드의 의견에 동의한다.

37) 콤란 히브리어에서 אֵיא는 성서 히브리어의 אֵיא를 표기한 것일 수도 있다. 실제 두루마리에서도 전치사구 אֵיא를 표기한 אֵיא보다 부정어 אֵיא를 표기한 אֵיא를 훨씬 자주 만날 수 있다.

38) Kutscher, *윳글*(1974), 168-170, 180-182, 499-500.

39) Qimron, *윳글*(1986), 22.

40) Reymond, *윳글*, 60.

3. 쿨란 히브리어의 음운

3.1. 후음의 약화⁴¹⁾

문서로만 남아 있는 사해 두루마리를 보고서 쿨란 히브리어의 음운 체계를 재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가능한 몇몇 뚜렷한 상황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후음의 발음이 약화된 것인데, 아래에서 볼 수 있듯 후음이 아예 소리가 안 나거나 (탈락), 다른 후음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다. 키르론은 후음 일반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필사본에서— 그리고 공식적인 필사본에서는 아주 가끔— 불규칙한 철자의 예가 많다”라고 말한다. “후음은 생략될 수도 있고(그리고 때로 나중에 행 위에 삽입되기도 하고), 어떤 후음이 다른 후음으로 잘못 쓰이기도 하고(그리고 후에 자주 수정되고), 심지어 후음 주변에 있는 모음 글자들이 잘못 쓰이기도 한다.” 키르론은, “따라서 우리는 쿨란 발음에서 후음들이 약화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한다.⁴²⁾ 아래는 쿨란 히브리어에서 후음이 탈락한 예들인데, 이것은 해당 후음이 적어도 아래의 사례에서는 발음되지 않았음을 방증해 준다.

א > ø: בהספם (= בְּהַסְפָּם; 1QS^a I, 1), הרין (= הַרְיִן; 1QpHab XIII, 1), היש (= הַיִּשׁ; 4Q175 I, 22), ונצה (= וְנִצָּה; 4Q175 I, 28), ופרי (= וּפְרִי; 1QM VII, 11), נשיי (= נְשִׁיָּי; 11Q19 LVII, 12), מודה (= מֹדֶה; 1QS X, 16), ורבעים (= וְרִבְעִים; 11QT^a XL, 10), שרית (= שְׂרִית; 1QS IV, 14),

ה > ø: ולהתלך (= וְלַהֲתֵלֵךְ; 1QS V, 10)

41) 아래 논의는 Qimron, *윗글*(1986), 25 (§200.11)을 주로 참고하였다. 뒤따르는 예도 여기서 가져왔다.

42) Qimron, *윗글*(1986), 25 (§200.11).

ע > ø: נשנתי (= נשענתי; 1QH^a XIX, 35)

위의 예들은 후음이 완전히 탈락한 예들이지만, 그 외에 마소라 본문
의 א와 ה가 콤란 히브리어에서 서로 바뀌어 쓰인 예들이 있다. 이러한
예들은 후음(이 경우엔 א와 ה)의 발음이 약화된 것을 방증해 주는데, 콤
란 히브리어의 사용자들이 적어도 아래의 경우에는 א와 ה를 정확하
게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א > ה: הברכנו (אברכנו; 1QS X, 6), הבחרה (= אבחרה; 1QS X, 12), הנשי (= אנשי; 1QS VIII, 13)

ה > א: באופיע (= בהופיע; 1QS X, 2), באמרות (בהמרות; 1QS VI, 26)

어말의 *a*를 표기할 때에 MT에서처럼 *h*로 표기하지 않고 *a*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람어의 영향일 수 있다.⁴³⁾

התורה (התורה; 1QS^a I, 11), עשרא (עשרה; 1QS^a II, 22), חוכמא (חכמה; 4Q286 1 II, 6)

레이먼드는 “콤란 히브리어에서 후음이 약화되었다”라는 말을 이해
할 때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음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약화되
지도 않았고, 동일한 후음이라도 환경에 따라 약화되는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네 후음(א, ה, ח, ע) 중 א와 ה는 약화가 꽤 진행된 반
면, ע과 ח는 그리 많이 약화되지 않았다. 또한 어두에서보다는 어중이나

43) Abegg, *윳글*(1998), 327. 뒤따르는 예들도 여기서 가져왔다.

어말에서 후음이 더 자주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⁴⁴⁾

후음과 관련하여 미슈나 히브리어의 경우 **א**와 **ה**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었다.⁴⁵⁾ 또한 일부 그룹에서 **א**와 **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고, **ה**와 **ח**를 구별하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⁶⁾ 그렇다면 쿰란 히브리어에서 후음이 약화된 상황과 미슈나 히브리어에서 후음이 약화된 상황은 비슷한 면이 조금은 있으나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2. /w/ 또는 /y/의 삽입⁴⁷⁾

음절을 시작하는 후음(특히 **א**)이 약화되어 (발음에서) 탈락할 경우 바로 앞 음절의 모음과 후음이 있던 음절의 모음이 충돌할 수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음절 구조는 불가능하므로 후음이 있던 자리에 활음(또는 경과음) /w/, /y/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래 예들을 보라.

/y/가 추가된 경우: **מַאִיּוֹת** (ה) (<מַאִיּוֹת>; 11Q19 XLII, 15, 57), **הַמַּיּוֹת** (= **הַמַּאִיּוֹת**; 11Q19 LVIII, 4), **מַאִיּוֹתֵי** (<מַאִיּוֹתֵי>; 1QM III, 17; IV, 2)

/w/가 추가된 경우: **תַּהוּוֹ** (<תַּהוּוֹ>; 4Q504 III, 3)

비슷한 현상을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차용어를 음역할 때에 모음 두 개가 연속된 경우 **ו**를 삽입한 것이다(**אֲנִיּוֹרִיא** ἔμπορία,

44) Reymond, 윗글, 111-114.

45) Segal, 윗글, 28.

46) Segal, 윗글, 27.

47) Qimron, 윗글(1986), 26 (§200.133). 뒤따르는 예들도 여기서 가져왔다.

B. Meši'a 2:1; כְּבִיאָ קַבְעִיא, *kuβεία*, *Sanh.* 3:3).⁴⁸⁾

위의 쿵란 히브리어의 예들과 미슈나 히브리어의 예들 모두 크게 볼 때 동일한 음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둘 모두 모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활음조(euphony)의 양상인 것이다.

3.3. ך의 삽입⁴⁹⁾

모음 또는 활음이 연속될 때에 ך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다.

כְּתִיבִים (= כְּתִיבִים; כְּתִיבִים와 כְּתִיבִים로도 쓰임), נוֹאִים (= נוֹאִים; נוֹאִים, נוֹאִים, נוֹאִים로도 쓰임), פְּתִיבִים (= פְּתִיבִים; פְּתִיבִים, פְּתִיבִים, פְּתִיבִים으로도 쓰임), לוֹיִאִים (= לוֹיִאִים; לוֹיִאִים; 4Q491 XIII, 6; ך 없는 형태는 매우 자주 쓰임)

키르논이 지적하는바 이러한 철자법은 불규칙하게 사용되어 심지어 한 두루마리 안에서도 ך를 쓰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모두 사용된다.

쿠처는 이 형태들에 ך가 사용된 것이 이화(異化)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즉, i가 i나 e 소리 근처에서 ך가 되었다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키르논은 ך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낮는지조차 의심스러우므로(예컨대, נְשִׂי [= נְשִׂיָא], 1Q19 LVII, 12), 자음 ך (= /y/)가 뒤따르는 i의 영향을 받아 모음 i로 완전 동화되었다고 생각한다(yi > i). 즉, כְּתִיבִים 또는 כְּתִיבִים의 발음은 /kit-ti-im/이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여기서 ך나 i는 모음 두 개가 연속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⁵¹⁾

48) Segal, *윳글*, 35.

49) Qimron, *윳글*(1986), 31-32 (§200.17). 또는 Fassberg, *윳글*을 보라.

50) Kutscher, *윳글*(1974), 511-515.

51) Qimron, *윳글*(1986), 31-32. Qimron이 말해 주지는 않지만, 철자를 그대로 따라 읽으면 그 발음은 아마 각각 /kit-ti-'im/이나 /kit-ti-yim/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3.4. 비음 ㄴ과 ㄹ

어말의 ㄴ이 ㄹ이 될 때가 있다.⁵²⁾ 이런 현상은 제2성전기 이후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헌에서 매우 자주 볼 수 있는데, 사해 두루마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만날 수 있다.

ולבנימים (= וּלְבַנְיָמִן; 4Q364 XI, 2 [= 창 45:22]).

어말의 비음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⁵³⁾

ㄴ의 추가: גבורתום (= גְבוּרָתוֹ; 1QS I, 21), רווחום (= רוּחוֹ; 1QS V, 21)

ㄴ의 탈락: רשא (= רֶשֶׁן; 4Q394 3-7 II, 26)

마소라 전통에서처럼 ㄴ은 일반적으로 동화되지만, ㄴ의 경우 동화되지 않은 예가 많다.⁵⁴⁾ 이 현상은 아람어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מן טהרת (1QS VII, 3), ומן נע[וריו] (1QS^a I, 6), מן [ג]בורת, (4Q185 I, 14), מן מול[א]כיו, (4Q185 II, 4), ומן ספר, (4Q176 I, 4), מן מקרת, (11Q19 XXXIV, 15)

어말의 ㄴ이 ㄹ이 되는 현상은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ריקון [= רִיקָוֹן; Pesah 5:6], הון [= הָוֶן]),⁵⁵⁾ 이 현상은 성서 시대 이후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52) Qimron, 윗글(1986), 27 (§200.142). 아래 예들도 여기서 가져왔다.

53) Qimron, 윗글(1986), 27-28 (§200.143). 아래 예들도 여기서 가져왔다.

54) Qimron, 윗글(1986), 30-31 (§200.16). 아래 예들도 여기서 가져왔다.

55) Segal, 윗글, 34.

3.5. ס과 ש/ש⁵⁶⁾

쿰란 히브리어에서 ס으로 표기되는 무성 치경 마찰음 /s/와 ש으로 표기되는 설측 마찰음 /ʃ/는 구별되지 않았다. 아래의 증거들을 보면 두 소리가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ס > ש : מאשור (= מאסור; 1QpHab I, 11), מנשה (= מנסה; 11Q19 LIV, 12), ישיתכה (= יסיתקה; 11Q19 LIV, 19)⁵⁷⁾

ש을 지운 후 ס으로 고친 경우: ונ[ס]כמה (= ונסכמה; 1Q20 V, 24), ר[ס] (ש) וי (= רוס; 4QD^a I, 10) פור[ס] (ש) (= פוס; 4QD^a I, 10)

이 두 소리는 이미 성서 히브리어에서 어느 정도 병합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마소라 본문에서는 역사적 철자법이 매우 잘 지켜졌다.⁵⁸⁾ 사해 두 루마리의 경우는 두 철자가 많이 혼용되었지만 그 실례들의 방향이 일방적이지는 않기에 키르론은 두 소리가 병합된 것이 쿰란 언어 공동체의 일부에 국한되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⁵⁹⁾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의 ש을 가진 단어들 중 다수가 ס으로 표기된다(אָרס, הָרִס, הָרִס, הָרִס, הָרִס, הָרִס).⁶⁰⁾ 그렇다면 쿰란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두 소리가 혼용될 때에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데 반해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는 ש이 ס이 되는 일방향성을 보이는 셈인데, 필자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슈나 히브리어에서 ש이 ס

56) Qimron, 윗글(1986), 28-30 (§200.15). 아래 예들도 여기서 가져왔다. Abegg, 윗글(1998), 327을 또한 보라.

57) 이외에도 Qimron은 성서 두루마리와 CD에서 발견한 많은 예를 추가한다. Qimron, 윗글(1986), 28-30.

58) Qimron, 윗글(1986), 29.

59) Qimron, 윗글(1986), 30.

60) Segal, 윗글, 32.

으로 변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두 소리가 병합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황을 보다 단순하게 설명해 주는 듯하다.

4. 결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콤란 히브리어를 총체적으로 개관하려면 철자와 음운 두 영역 외에도 단어의 형태(형태론)와 문장의 구조(구문론)를 또한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콤란 히브리어를 개관하는 한국어로 된 첫 시도로서, 이들 중 작은 단위인 철자법과 음운 체계 특징들의 일부만을 개관하였다. 우리의 개관이 종합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콤란 히브리어의 철자법 및 음운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마소라 본문과 비교할 때 콤란 히브리어는 완전 철자법을 보다 많이 사용함으로써(2.1.-2.3.) 철자의 형태가 보다 발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경향을 지녔다. 마소라 본문의 발음 전통은 자음 본문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기보다는 중세 마소라 학자들이 덧붙인 모음 부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반면, 콤란 히브리어는 ʾ와 ʿ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발음을 표기법을 통하여 보여 주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현상은 미슈나 히브리어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ʾ 및 ʿ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콤란 히브리어 및 미슈나 히브리어 두 방언이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여 준다.

둘째, 어말의 이중자(2.5.)는 마소라 전통과 다른 발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콤란 히브리어에서 **נ**가 특히 약화된 점(3.1.)을 기억할 때에 더욱 그러하다.

셋째, 콤란 히브리어에서 후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것(3.1.)은 마소라 전통의 성서 히브리어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방향성이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성서 히브리어

에서 \aleph 의 경우는 이미 약화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예컨대, \aleph 가
읍 32:18에서 \aleph 로 쓰인 것을 보라). 미슈나 히브리어의 경우에도 동
일하지는 않지만 비견될 만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콤란 히브리어에서 \aleph 과 \aleph 이 마소라 전통과 비교할 때 덜 정확하
게 쓰인 것(3.4.)은 콤란 히브리어의 비음 체계가 성서 히브리어의 비음
체계와 분명하게 달랐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체계는 미
슈나 히브리어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 듯하다.

다섯째, \aleph 과 \aleph 이 마소라 전통에서보다 콤란 히브리어에서 더 많이
혼용되는 것(3.5.)은 (음운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철자에서는 성서 히
브리어와 콤란 및 미슈나 히브리어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요컨대, 유형적으로 볼 때에 콤란 히브리어의 철자 및 음운은 앞선 성
서 히브리어 및 뒤따르는 미슈나 히브리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철자에
있어서 몇몇 독특한 특징이 보이긴 하지만(예컨대, 이중자의 사용), 음
운에 있어서 큰 차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없다. 결론적으로, 콤란 히브
리어의 철자와 음운은 고대 히브리어의 전통 안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
다. 그러나 철자 및 음운에만 근거한 우리의 잠정적인 결론이 콤란 히
브리어가 성서 히브리어 또는 미슈나 히브리어와 비슷한 방언이었다는
명제로 이어질 수는 없다. 종합적인 그림은 무엇보다 단어들의 형태를
고찰한 후에야 그려질 수 있을 것이다.

마소라 본문은 제2성전기 및 중세 시대를 거쳐 발전되었으므로 성서
히브리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콤란 히브리어 및 미슈
나, 랍비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본 소고가 관심 있는 학
도들로 하여금 콤란 히브리어 그리고 더 나아가 미슈나 히브리어의 문
턱을 넘는 데에 약간의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5. 참고문헌

- 김덕중, “1QpHab(하박국 주석서)를 통해 본 쿵란 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20집 (2006), 35-58.
- 송창현, “사해 두루마리에 나타난 알레고리 해석: 1QH^a XVI 5-12를 중심으로”, 「Canon&Culture」 8/2 (2014), 71-103.
- _____, “쿵란 사본과 성서 연구: 4Q285, 4Q448, 4Q246, 7Q5, 11Q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6호 (2005), 7-38.
- _____, “쿵란 사본과 정경의 문제”, 「Canon&Culture」 6/2 (2007), 72-104.
- _____, “쿵란의 유대리즘과 헬레니즘”, 「Canon&Culture」 7/1 (2009), 97-127.
- _____, “쿵란의 이사야서 사본과 성서 번역”, 「성경원문연구」 20호 (2007), 30-51.
- 신성윤, “고전 히브리어의 미완료 2/3인칭 남성복수 동사 어미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1/1 (2009), 105-131.
- _____, “성서 히브리어 미완료 1인칭 단수 의지표현법 형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1/1 (2010), 217-248.
- 이윤경, “1QM(전쟁문서)에 나타난 계약 신학”, 「구약논단」 20집 (2006), 59-81.
- _____, “쿵란문서에 나타난 정결법(טהרה טוהור) 토호라”, 「구약논단」 34집 (2009), 144-161.
- _____, “쿵란 시편사본과 페세르 시편을 통해 본 쿵란공동체의 신학”, 「Canon&Culture」 10/1 (2016), 147-171.
- 임봉대, “1QpHab vii.5-viii.3에 나타난 의인(義人)의 구원에 관한 이

- 해”, 「구약논단」 60집 (2016), 66-95.
- 조명기, “이사야 6장 해석: 1QIsa^a Col. VI: 2b-10에 나타난 히브리어 변형연구”, 「구약논단」 25집 (2007), 103-119.
- _____, “쿰란 공동체의 하박국 재해석”, 「구약논단」 20집 (2006), 10-34.
- _____, “쿰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자기이해”, 「구약논단」 22집 (2006), 115-128.
- 천사무엘, 「사해사본과 쿰란 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_____, “쿰란공동체의 성서해석”, 「구약논단」 4집 (1998), 99-123.
- _____, “구약정경의 형성과정에 대한 재고: 표준 이론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1집 (2014), 200-226.
- Abegg, Martin G., et al., *The Dead Sea Scrolls Concordance*, 3 vols. (Leiden: Brill, 2003-2010).
- _____,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Peter W. Flint and James C. VanderKam (eds.), *The Dead Sea Scrolls after Fifty Years: A Comprehensive Assessment*, 2 vols. (Leiden: Brill, 1998), 1:325-358.
- _____, “The Linguistic Analysis of the Dead Sea Scrolls: More Than (Initially) Meets the Eye”, Maxine L. Grossman (ed.), *Rediscovering the Dead Sea Scrolls: An Assessment of Old and New Approaches and Methods* (Grand Rapids: Eerdmans, 2010), 48-68.
- Accordance 9.5 (Altamonte Springs, Florida: OakTree Software, 2009).
- Blau, Joshua, “A Conservative View of the Language of the Dead Sea Scrolls”, T. Muraoka and J. F. Elwolde (eds.), *Diggers at the Well: Proceedings of a Third International Sympo-*

- sium 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nd Ben Sira* (STDJ 36; Leiden: Brill, 2000), 20-25.
- Collins, John J., "Dead Sea Scrolls", David Noel Freedman (ed.), *Anchor Bible Dictionary*, 6 vols. (New York: Doubleday, 1992), 2:85-101.
- Fassberg, Steven E., "Dead Sea Scrolls: Linguistic Features", Geoffrey Khan (ed.),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온라인 자료; 2017년 7월 22일 접속). http://dx.doi.org.proxy.library.emory.edu/10.1163/2212-4241_ehll_EHLL_COM_00000277.
- Kim, Dong-Hyuk, "Free Orthography in a Strict Society: Reconsidering Tov's 'Qumran Orthography'", *Dead Sea Discoveries* 11 (2004), 72-81.
- Kutscher, E. Y., "Hebrew Language: The Dead Sea Scrolls", Fred Skolnik and Michael Berenbaum (eds.), *Encyclopaedia Judaica*, 22 vols. (Detroit: Macmillan, 2007), 8:634-639.
- _____, *A History of the Hebrew Language*, Raphael Kutscher (ed.) (Jerusalem: Magnes, 1982).
- _____, *The Language and Linguistic Background of the Isaiah Scroll (1QIsa^a)* (STDJ 6; Leiden: Brill, 1974).
- Morag, Shelomo, "Qumran Hebrew: Some Typological Observations", *Vetus Testamentum* 38 (1988), 148-164.
- Pérez Fernández, Miguel, *An Introductory Grammar of Rabbinic Hebrew* (Leiden: Brill, 1999).
- Qimron, Elisha, "Grammar of the Hebrew Language of the Scrolls of the Judean Desert" (PhD diss., Hebrew University, 1976; in Hebrew).

- _____,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HSS 29; Atlanta: Scholars Press, 1986).
- _____, “The Nature of DSS Hebrew and Its Relation to BH and MH”, T. Muraoka and J. F. Elwolde (eds.), *Diggers at the Well: Proceedings of a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nd Ben Sira* (STDJ 36; Leiden: Brill, 2000), 232-244.
- Reymond, Eric D., *Qumran Hebrew: An Overview of Orthography, Phonology, and Morphology* (RBS 76;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4).
- Schniedewind, William M., “Linguistic Ideology in Qumran Hebrew”, T. Muraoka and J. F. Elwolde (eds.), *Diggers at the Well: Proceedings of a Thi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and Ben Sira* (STDJ 36; Leiden: Brill, 2000), 245-255.
- _____, “Qumran Hebrew as an Anti-languag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8 (1999), 235-252.
- Segal, M. H., *A Grammar of Mishnaic Hebrew* (Oxford: Clarendon, 1927).
- Stegemann, Hartmut, Eileen Schuller, and Carol Newsom, *Qumran Cave 1.III: 1QHodayot^a: With Incorporation of 4QHodayot^{a-f} and 1QHodayot^b* (DJD 40; Oxford: Clarendon, 2008).
- The SBL Handbook of Style*, 2nd ed. (Atlanta: SBL Press, 2014).
- Tov, Emanuel, “The Orthography and Language of the Hebrew Scrolls Found at Qumran and the Origin and Language of These Scrolls”, *Textus* 13 (1986), 31-57.

- _____. “Reply to Dong-Hyuk Kim’s Paper on ‘Tov’s Qumran Orthography’”, *Dead Sea Discoveries* 11 (2004), 359-360.
- _____. *Scribal Practices and Approaches Reflected in the Texts Found in the Judean Desert* (STDJ 54; Leiden: Brill, 2004).
- VanderKam, James C., *The Dead Sea Scrolls Toda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10).

검색어

사해 두루마리

쿰란 히브리어

미슈나 히브리어

철자

음운

Qumran Hebrew: A Typology within the History of Ancient Hebrew

Dong-Hyuk Kim

Lecturer at Yonsei University

Yale University,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orthography and phonology of the Hebrew of the Dead Sea Scrolls (= Qumran Hebrew, hereafter QH) and, on the basis of the description, to locate them typologically within the history of ancient Hebrew. In the current context, two conditions necessitate this study. First, an overview like this one has never been attempted in Korean biblical scholarship. Second,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publication of the scrolls having been completed, the necessity of a linguistic overview of QH has re-emerged.

As QH's orthographic features, the study discusses (1) the use of

www.kci.go.kr

the mater ַ, (2) the use of the mater ֿ, (3) the use of the 2nd person masculine singular forms of זָכָה and קָטְלוּהָ, (4) the writing of some III-ה־ construct nouns with final ֿ, (5) the use of the digraphs זִיא־, יִא־, and יִא־ in medial and final positions. As QH's phonological features, the study examines (1) the weakening of the gutturals, (2) the insertion of the glides /w/ and /y/, (3) the insertion of א between vowels or glides, (4) the change of final נ into ג, (5) the orthographic merge of /s/ and /š/. Each feature is examined especially by comparing it with the corresponding BH feature. The comparable Mishnaic Hebrew (hereafter MH) features are also addressed briefly.

On the basis of the above discussions, this study concludes the following. First, just like MH, QH uses the full spelling more frequently than the Masoretic tradition and thus tries to bring its spellings closer to actual pronunciations. Second, the final digraphs are not thought to represent pronunciations different from the Masoretic tradition. Third, QH's overall weakening of the gutturals points to the same direction as BH of the Masoretic tradition and MH. Fourth, QH's confusion of some nasals indicates that the system of QH's nasals was different from that of BH's but similar to that of MH's. Fifth, the merge of /s/ and /š/, which continued in MH also, presupposes a situation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BH. This study concludes that, typologically speaking, the orthography and phonology of QH a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of BH and MH, and that they are firmly placed in the tradition of ancient Hebrew.

In addition to portraying the general picture of QH and locating it within the history of ancient Hebrew,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help and encourage students to access the Dead Sea Scrolls more readily.

Keywords

Dead Sea Scrolls

Qumran Hebrew

Mishnaic Hebrew

orthography

phonology

- 투고일: 2017년 9월 30일
- 심사일: 2017년 11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1월 16일

www.kci.go.kr